

사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에게 물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옷을 두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라고 했다. 어느 사회복지시설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남을 위해 살아가시는 모습이 훌륭합니다." 라고 말했다니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덕분에 삽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지 않을까. 실제로 아름다운 배움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허가 아닌 행동으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 나눔이란 그런 것이다. 성서에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자(요한 3,18)."라는 구절이 있다.

나눔의 첫걸음은 '공감'이 '함께함'이다. 아프리카에는 '우분투(ubuntu)'라는 반투족의 말이 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는 뜻이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자주 애용했던 말이다. 어느 날 아프리카 부족의 문화와 관습을 연구하던 한 인류학자가 게임을 했다. 어느 부족 아이들을 모아 놓고서. 큰 나무 밑에 초코렛, 과자, 사탕이 가득 담긴 선물 바구니를 놓아두고서. 가난한 땅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것이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해서 1등으로 도착하는 아이에게 모두 주겠다는 것이었다. 이 게임을 시작한 학자는 이를 가져가기 위해 틀림없이 기를 쓰고 달릴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이었다. 출발신호를 주는 순간 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손에 손잡고 한 줄로 뛰어갔던 것이다. 모두가 1등을 한 것이다. 도란도란 웃음 띤 얘기를 하면서 나눠 먹었다. 하도 신기해서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순진무구한 얼굴로 모두 "우분투" 라는 말을 함장했다. 한 아이가 대표로 일어나서 "내가 1등을 해서 과자를 독차지하면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슬플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 혼자 행복할 수 있겠어요?"라고 했다는 것이다.

사람은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존재한다는 뜻이다. 과연 문명사회에서도 그랬을까? 그 후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아프리카를 제외 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브라질 상파울루,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스웨덴 스톡홀름, 일본 도쿄 등 나머지 5대륙에서 동일 실험을 했었다. 그런데 급반전이 나타났다. 모든 아이들이 한결같이 1등을 하려고 기를 썼다는 것이다. 결국 1등이 독차지해버렸다. 6대륙 가운데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 아이들이만 더불어 나누는 행복을 느끼며 손을 잡고 함께 달렸던 것이다. 철단을 달리는 현대 문명세계. 이곳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그들에게는 체질화된 경쟁문화만 있었던 것이다. 승자독식과 갑질문화로 타인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참으로 무서운 현상 아닌가. 온갖 탐욕으로 얼룩져가는 현대인들. 탐욕은 탐욕을 낳고 그 탐욕은 새로운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탐욕을 부치기는 기업들. 기발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 그 탐욕을 충족시켜준다. 하지만 만족은 잠시. 마치 짜디짤 해수들이 낚시꾼들처럼 또 다른 먹이물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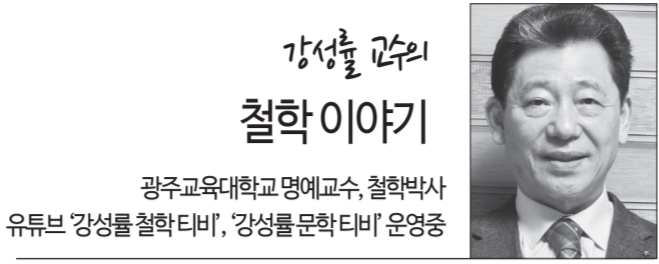
결국 이의 끝은 죽음밖에 또 있겠는가. 성서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정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와 뭐가 다를까. 가난하더라도 함께 행복하고자 하는 나눔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는 공동체 정신에서 나온다. 인간은 인간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식물도 군락지가 있듯이. 서두에서 말한 세례자 요한의 말을 곱씹어 보면 어떨까.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이 송암 발행인 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준 편집국장 박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안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525-9775 <팩스> (062)528-4566
회장실 (내선)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47,000원

동양철학자의 경우, 친구 때문에 살아난 경우가 있고, 친구 때문에 죽은 경우가 있다. 전자는 관중이고, 후자는 한비자이다. 먼저 관중의 예이다. 관중(管仲, ?-기원전 645년 무렵. 춘추시대의 정치가, 법가사상가)과 포숙아(鮑叔牙, ?-?. 춘추시대 제나라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한 '관포지교'는 역사상 우정의 상징이 되어 있다.

관중은 어려서부터 매우 가난하였고, 계획한 모든 것이 순조롭지 못하여 곤고(困苦)와 좌절의 세월을 보냈다. 이러한 그의 신세를 두고,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할 정도였다.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려주고자 하면, 먼저 반드시 그 마음을 괴롭히고 뼈골을 수고롭게 하며 배를 굶고 머리를 덩 비게 하여 행위를 어지럽히고 심성을 억눌러, 불가능한 일을 더욱 불가능하게 만든다."

만일 그가 관포지교(管鮑之交)로 널리 알려져 있는 단 한 사람의 친구 포숙을 만나지 못했다면, 벼슬이나 공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생활 자체마저 지탱해 나가지 못했을 것이다. 관중은 어려서부터 포숙과 절친하였다. 포숙은 그를 매우 잘 이해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존경하기까지 하였다. 일찍이 둘은 남양(南陽,



강성호 교수의 철학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브 강성호 철학티비, 강성호 문학티비 운영중

철학자들의 우정-관포지교(1)

중국 허난성 남서부의 현)에서 장사를 하여 목돈을 벌었다. 그런데 포숙은 관중이 자기보다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그를 더 동정하였다. 관중 역시 포숙을 위하여 여러 차례 일을 도모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하는 일마다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럴 때마다 포숙은 "자네에게 운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세."라고 위로하곤 하였다.

또 관중은 세 차례 벼슬을 하였으나 모두 벼슬에서 좌천되다시피 하였고, 전쟁에 세 차례 참가했으나 모두 패하여 도망쳐야 했다. 이렇게 치욕적인 일로 인하여 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포숙만은 그의 가슴속

에 품은 큰 뜻과 웅대한 포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용기를 북돋우어주었다. 이처럼 지극한 우정에 대하여, 관중은 나중에 이렇게 감탄한 적이 있다.

"일찍이 내가 가난할 적에 포숙과 함께 장사를 한 적이 있다. 이익을 나눌 때마다 내가 몫을 더 많이 가졌지만, 포숙은 나를 욕심 많다고 비난하지 않았다. 내가 가난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언젠가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해 매우 어렵게 되었는데, 포숙은 나를 어리석다고 비난하지 않았다. 상황에 따라 일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세 번 벼슬길에 나갔다가 세 번 모두 임금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만, 포숙은 나를 무능하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시운(時運)을 만나지 못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세 번을 싸워 세 번 모두 패하여 달아났지만, 포숙은 나를 겁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에게 늙으신 어머니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건대, 나를 낳아준 이는 비록 부모이지만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이는 포숙이다."

관중은 당시 제나라의 양공(襄公, ? ~ 기원전 686년)이 방약무도하게 행동하자 '장차 언젠가 이 나라에 큰 난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하고는, 포숙과 함께 후일을 도모한다. 이 양공으로 말할 것 같으면, 춘추시대 제나라의 제14대 후작으로서 공자 규의 형이다. 재위 기간 동안 비록 국력이 강대해졌으나, 성품이 방약 무도하여 백성들의 인심을 크게 잃고 말았다. 그 예로, 노(魯)나라 환공이 부인과 함께 제나라에 왔을 때, 누이인 노부인(魯夫人)과 사통(私通, 간통)한 다음, 환공을 살해하였다. -다음 편으로 이어짐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화제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단 한순간의 방심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비상구 폐쇄·차단, 소방시설 차단과 같은 불법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예방이 최고의 소방, 신고가 안전을 지킨다

이 제도는 누구나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목격했을 때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사회적 감시망을 확대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재난을 예방하는 실질적 장치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에서 소방시설은 곧 생명의 통로다. 그러나 비상

구가 막히거나 소화전이 불법으로 차단된 상태라면 화재 시 대피와 초기 대응이 불가능해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된다. 신고 포상제는 이러한 위험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예방이 최고의 소방'이라는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무엇보다 제도의 성패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다.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려는 마음

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빨라진다. 소방당국 또한 신고를 철저히 처리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한다.

화재 없는 안전한 사회는 소방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높은 안전 제도다.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정재성

오늘의 운세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음력 9월 28일)

Grid of 12 zodiac signs with their respective daily forecasts. Includes icons for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